

탄지니아

- 이병철 박미란 선교사

이웃에게 내어주어 함께 지내기로 작정하고 마을 이장의 동의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함께 머물게 할 예정입니다.

미혼모 헬터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8세 임신8개월로 출산일이 5월 16일인 미혼모인 그녀는 그동안 숨어서 지내다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보고 쫓아내어 갈 곳이 없어 멀리 친척집에서 지내다가 산 달이 다 되어 저희에게 왔

다리를 다쳤던 자매의 다리는 이제 거의 다 나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느낄길 기도합니다.



2024년 6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0개국 329명 (자체 파송 79%)

GRACE 선교소식

케냐

-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

건축을 위해 2에이커(240평)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위해 더욱 큰 비전을 갖게 하셨습니다.

신학교는 3월에 한 세션 있었고, 지난 5월에 15기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5월 11일에 28명의 학생들이 2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의 사역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두 군데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마라파의 브릿지 은혜교회와 킬리피의 중고등학교 부지에 우물을 파고 5천리터 물탱크까지 올려 잘 완성하였습니다. 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되어 마시는 사람들마다, 이 물로 쌓아올리는 벽돌 한장 한장에도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케냐국립 킬리피도서관과 계약을 맺고 매달 300권씩 책을 빌려다 보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소식은 하나님께서 중고등학교

인도

- 한OO 손OO 선교사

땅에 널리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사역자인 두자매와 한 형제가 GIGL 훈련생과 팀멤버로 참여를 하였으며, 특히 팀멤버로 참여한 한 자매는 복음이 자신의 삶속에 어떻게 중심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팀사역의 중요성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한주에서 진행 된

인카운터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인카운터 후에 바로 타 국가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부처를 믿는 한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저희 사역자들을 인도를 통해서 세계선교 계획을 가지고 저희 사역자를 훈련시키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비자 유지와 전도를 위해서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며 이를 통해서 복음이 함께 이 인도

이스라엘

- 김OO 조OO 선교사

과 육이 망가진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예수님에 관해 나누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 하셨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현재 재활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탱크와 보병부대가 가자 지구 최대 도시 라파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 공동체에서도 3명이 이 전투에 투입이 되었

습니다. 이들 중 2명은 2명과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이들 모두 생사의 위기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또한 하루속히 유대인과 아랍인 가운데 용서와 화복과 주님의 평안이 속히 임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배고픈 많은 노숙자들이 홍수처럼 몰려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 나누었습니다. 또한 2년 정도의 노숙생활과 마약으로 인해 영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신학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청지기 선교회는 매월 30일부터 시작하여 50월, 100월, 200월 그 이상의 금액을 약정하고 청지기 후원금을 모금하였

습니다. 청지기 선교 후원을 통해 은혜 GMI 선교는 더욱 선교의 활력을 얻게 되었고 지금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GTD 204 여성 (6/9-6/12)
- >삼일교회(송태근집회)(6/17-6/21)
- >한국 은혜동산16기 (7/19-7/28)
- >몽골 TD 1기 (7/26-8/3)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과테말라

- 최용준 최재숙 선교사

지난 주에는 끼체(QUICHE)라는 도시에 있는 마하나임(MAHANAIM) 교회에서 “위엣 것을 찾으라”(골3:1-4)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5년전 팬더믹 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규모가 꽤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성도의 80% 정도가 교회를 떠나고 지금은 얼마 안되는 성도만 남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교회 담임목사는 저희 GMI 신학교에 지난 연초에 입학해서 열심히 GMI 영성을 쌓아가고 있는 신학생입니다. 교

회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큼니다. 얼마전에는 지속적으로 GMI 선교비전에 함께 하겠다고 저에게 다짐까지 했습니다. GMI 과테말라 선교사역을 위해 귀한 동역자를 붙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니카라과에 GMI 복음사역의 첫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3월에 니카라과를 방문해서 각 교단 목회자 리더들과 만나서 GMI 선교사역의 비전을 나누었고, 5월 29일에 니카라과 수도인 마나과(MANAGUA)에서 GMI 니카라과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중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교회 핍박이 심한 사회주의 국가인 니카라과에 앞으로 교회들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과테말라 신학교에는 올해 초 2024년 3기 신입생 30명이 입학해서 2기생과 함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3기생중에는 엘살바도르 신학생들이 17명이나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니카라과 학생도 2명이 그 먼 나라에서 1박 2일동안 버스 타고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두라스와 코스타리카까지 학생들이 소문을 듣고 GMI 신학교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 김적용 박영란선교사

현재 필리핀은 너무 뜨거워서 학교수업을 수시로 휴교할 지경이며 저희 동네는 물도 부족해서 급수차가 올 때마다 각 가정에서 물

통을 들고나와 줄을 서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는 크고 넘치니 감사할 뿐입니다.

필-콜 교회에서는 부활절에 믿지 않는 불신자와 장기간 결석자들을 초대해 할로할로데이 행사를 했습니다. 청소년 200여명도 초청하여 이틀간 신앙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계

속되는 전도를 통해서 많은 천주교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도 진행될 수 많은 사역들이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려지도록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타르스탄

- 주선민 손소미아 선교사

2024년 새해를 온 교회 성도들과 성경읽기 수련회로 시작하여 더 큰 기대감과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카잔볼가 한글학교는 방학을 마치고 신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3년 정도 한글학교에서 공부중인 학생들이 7명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 교제도 많이 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슬림 학생이 반 이상이라 성령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카잔연방대학교에서도 학생들

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성실하게 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막내 세아의 다리 수술을 5월22일 한국에서 합니다. 세아가 더욱 건강하고 다리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파키스탄

- 정OO 이OO 선교사

2024년 1월 26일 마침내 이곳에 지하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슬림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종교적 신분만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우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의 영적 부흥과 특별히 이들을 통

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시리아 난민학교를 통해 계속 해서 아직 종교적으로 이슬람화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의 복음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르메니아

- 백승환 올가 선교사

아라랏 프레스 디아스 16기를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캔디테이트 84명 팀멤버 92명 총 176명이 참석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청년층 20,30대가 많이 참석했는데... 그룹기도 시간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한 질병 치유등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 파송된 삼손, 베네라 부부가 어느덧 파송 3년째를 맞고 있는데, 함신 교회 및 함신 티디를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터기 함신지역은 무슬림으로 개종한 터키인들이 많이 살고 있

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아르메니안들보다 아르메니안 후손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사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함신 지역에서는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 개척을 앞두고 특별히 본 교회로부터 강력한 기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죽었다"는 실체

<1분단상 128-6월호>

-김대규 장로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죽었다”함은 오히려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혀 죄로 죽어 장사되었고 예수님이 부활 하시므로 새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었기에 그렇다. 그러므로 “죽었다”는 것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다. 교리적인 것뿐이 아니다. 오히려 주와 동행하며 영생하는 사실적이고 체험적인 실체이다(갈2:12,20,24). “죽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온전히 성경을 깨닫고 말씀이 나의 레마로 역사할 때 사실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치중하여 배웠고 세례(침례)를 예식적으로 치렀기에 많은 이들이 그냥 지나쳐 개념적으로 알고 있음을 발견케 된다.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만 들게 한다.

우리에게는 늘 허상과 실상이 overlap 되고 있다. 우리가 보고 알고 느끼며 부딪치며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새로움도 지속되지 못한다(전 1:1-11). 언젠가는 모든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에(계20:11) 실제로 보이나 사실은 허상이다. 이러한 허상속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삶도 허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실상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 것이다. 속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이세상을 떠날때 그간 이루어 놓은것중 가져가고픈 어느 것도 가져갈수 없는 허망스러움 뿐이라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반면 주를 믿는 이들에게는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알고, 느껴지는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영원성을 지닌 소망의 실체가 있다(계 21:1,27).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주를 믿고 따르므로 영원히 존재하는 구원과 부활과 의와 영광과 영생이 바로 그것이다. 보이기에는 허상인 것 같으나 영원히 실존하는 하나밖에 없는 실상이다. 우리는 이 실상에 붙들려 살고 있어야 한다.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과 구별되고(거룩) 정결한 삶으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죽었다”라고 하는 실체로 사실은 영생의 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삶은 옳은 행실을 말한다. 주의 의에 입혀진 의, 충성, 신실, 주를 위한 삶이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이다. 나는 죽고 주만 나타나는 삶인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화를 인용한다. 신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른 환자가 있다. 의사는 소금기 없는 음식과 채소를 처방해 주었다. 그때부터 그는 치료를 위해 의사가 준 처방대로 소금기가 전혀 없는 식단을 철저히 지키며 타협하지 않고있다. 짧은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깨달아야 할, 가야만하는 길을 가르친다. 지금 이 환자의 의식과 행동을 주가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 내 자신일까 아니면 의사일까? 의사인 것이다. 의사의 말을 따르는 순간, 환자는 자기 의사를 포기한 것이다. 오직 의사의 처방이 환자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요3:16). 겉으로 볼 때는 여전히 환자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듯이 보이지만 허상일 뿐 실상은 의사인 것이다. 여기서 의사는 주님인 것을 지칭한 것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르친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허상과 주가 주신 실상이 오버랩 되어 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느 쪽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실상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 강조하지만 이것이 “죽었다”고 말하는 실체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러지는 삶,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산 삶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왜 이리 살지 못하는 것일까?

주님에 대한 신뢰와 절대성의 결여에서 알게 모르게 밀려드는 죄 많은 세상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 찌들어 있다. 탈바꿈이 되지 않고서는 항상 실상과 허상을 오락가락하게 된다. 이는 시간 낭비이자 불신앙이다. 영원한 소망을 성취하기가 힘들다. 앞서 말한 환자와 같이 철저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실상대로 살 수 있다. 허상인 죄와 세상을 버려야한다. 얼마나 힘겨운 일이면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고 이 싸움의 처절함을 토로했을 정도이다. 우리는 매일 같이 죽었나하면 벌떡 살아있는 자신과 싸워 매일 죽는 싸움에서 죽어야 한다. 그래야 실상속에서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거하게 된다. 이 때 실상인 영원한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이 출발점은 바로 “죽었다”는 실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고로 과연 우리가 “죽었다”는 실체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곰씹어 보아야 한다